

연구논문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

김필숙** · 이윤석***

이 연구의 목적은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2차 연도(2008년)부터 9차 연도(2022)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분석기간 동안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의 비율이 높고 부정적 결혼의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결혼의향이 있는 여성은 결혼의향이 없는 여성에 비해 결혼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다.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자보다 긍정적 결혼의향이 높을수록 결혼이행 가능성이 더욱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미혼 여성의 혼인을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결혼의향, 결혼이행, 여성가족패널, 이산시간 사건사분석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46326).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 수료(philsookkim@gmail.com), 제1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yslee@uos.ac.kr), 교신저자.

I. 서론

최근 미혼 인구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로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통계청의 혼인 건수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통계청 2023). 이러한 혼인을 감소로 미혼 인구 비율은 지난 30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 올수록 남녀 모두 30대의 미혼 인구 비율 변화가 매우 크다. 1990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도의 30~39세 남성 미혼 인구 비중은 9.5%에서 50.8%로 5배가량 늘었고, 여성은 4.1%에서 33.6%로 8배 이상 증가했다(통계청 2021).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혼 인구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혼 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 ‘결혼해야 한다(‘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를 합친 응답)’는 응답이 남성은 2010년 64.7%에서 2020년 40.8%로 줄었다. 같은 해 미혼 여성은 46.8%에서 22.4%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통계청 2010, 2020).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본인의 결혼의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결혼 동향조사에 따르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한 미혼 남녀(20~44세) 중 남성의 경우 2015년 74.5%에서 2018년 58.8%로 감소했으며, 미혼 여성의 경우 64.7%에서 45.3%로 남성보다 조금 더 크게 낮아졌다. 이 조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본인의 결혼의향에 있어 성별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2018년 미혼 남성의 50.5%가 결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를 합친 응답)으로 응답했고, 58.8%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미혼 여성의 경우 28.8%만이 결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45.3%가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8).

그러나 이처럼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의 일정한 태도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이인정 2005; Ajzen 1991) 결혼 관련 연구에서 태도와 행동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치관 및 태도와 결혼과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많

은 선행연구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이 미혼 인구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혼 여성들의 비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은 비혼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정희경·신형진 2020), 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나·황명진 2019). 또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미혼 여성의 결혼 결정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높게 나타났다(김은정 2018).

이 외에도 많은 국내 선행연구는 결혼의향과 결혼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해 왔다. 예를 들어 학력, 취업 여부, 정규직 유무, 소득 등 개인의 경제적 자원은 결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 2006; 오지혜·임정재 2016; 우해봉 2009; 윤자영 2012; 최필선·민인식 2015).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자원에 따른 결혼 가능성을 설명하는 가장 지배적인 논의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결혼 연구의 한 가지 특징은 성별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결혼의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취업 및 교육 수준은 결혼의향을 오히려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김중백 2013; 김혜영·선보영 2011). 이러한 차이는 앞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수록 전 연령층에서 여성의 미혼율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박종서 외 2021; 통계청 2021; 2022). 그뿐만 아니라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여성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여성이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을 지도 모른다(송다영 2023; 통계청 2020).

그렇다면 미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의향이 실제 결혼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 또한 일정한 관계로 설명될 수 있을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향이 결혼이행으로 연결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일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의 결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가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결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에 대한 태도와 행동 간의 이행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다시 말해, 반복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를 통해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반적인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불과하며(이상림 2018; 진미정·정혜은 2010; 호정화 2014; Lee 2019), 개인의 태도가 결혼이행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국내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의 국외 선행연구는 결혼에 대한 태도가 결혼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

혼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혼이 실현되는 형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단적 자료(longitudinal survey)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의 연구대상자 분석 및 표본 크기의 한계로 인해 개인의 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 지 구체적인 과정을 관찰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Raymo, Uchikoshi, & Yoda 2021; Villoughly 2014).

최근 미혼 인구에 대한 결혼 관련 연구는 가족 및 인구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저출산 및 혼인 건수 하락으로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이 학업 기간이 연장되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및 주거 독립도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성인기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 과정이 점차 지연되고 있다(Cheng & Yang 2021; Lei & Mai 2024). 이런 과정에서 개인의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므로 한 시점에서의 태도가 아닌 종단적 자료를 통해 태도 변화가 실제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성에 주목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자료를 통해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를 살펴보고, 결혼의향이 실제 결혼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혼인을 변화에 미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미혼 인구의 결혼에 대한 개인 및 사회 구조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의향(intention)과 행동(behavior)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은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의향은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인식된 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에 의해 형성되고 일정한 의향을 가지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의향은 행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Ajzen 1991). 지금까지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초한 대표적인 연구는 출산 의향 및 의도와 출산 행동 간의

연관성 분석이다(Ajzen & Klobas 2013; Morgan & Rackin 2010; Schoen et al., 1999).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출산 의향이 실제 출산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김영아·곽은혜·김근태 2022; 우해봉·이지혜 2019; 우해봉·장인수 2019; 신윤정 외, 2020).

이처럼 지금까지 의향이 개인의 행동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출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결혼의향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 연구는 앞서 논의한 이론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결혼의향에 대한 개념적 모델만 제시하고 있다(Xie & Hong 2022).

그러나 최근 혼인을 감소로 인해 미혼층에 대한 결혼 관련 연구가 인구학 및 가족학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에, 의향이 개인의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혼의향과 결혼이행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계봉오·황인찬 2023; Willoughby, Hall, & Luczak 2015).

지금까지 결혼의향은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결혼 가치관 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됐다. 결혼 가치관 및 태도를 조사한 많은 문항이 ‘결혼은 꼭(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혼 필요성과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및 태도를 측정하고 있다(박종서 외 2021; 진미정·한준·노신애 2019; 통계청 2022; KGSS 2016). 이러한 측정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오은영·추주희 2020; 정병삼 2021; 정희경·신형진 2020). 그런데 가치관 및 태도와 달리 의향(intention)은 실행 가능한 목표를 행동하려는 결심을 말한다. 따라서 결혼의향은 결혼에 대한 가능성으로 본인이 실제 결혼하려는 의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혼 관련 연구에서 결혼에 대한 의향, 결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 등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김은정 2018; 박선영·이재림 2022; Miller 2011; Park & Rosen 2013; Raymo, Uchikoshi, & Yoda., 2021; Willoughby, Hall, & Luczak 2015).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왔다. 먼저, 성별과 관련해서 보면 미혼 남성에게 비해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이 낮다(김영아·곽은혜·김근태 2022; 김정석 2006; 조성호·변수정 2020). 이는 앞선 논의에서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결혼의향에서도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소영 외 2018; 통계청 2010, 2020). 이러한 성별 차이는 결혼의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연령에서도 나타난다. 남녀 모두 연

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의향은 감소하지만, 이러한 연령효과가 미혼 여성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 2006). 가족 가치관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를 보면 결혼 및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동거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더 높다(김혜영·선보영 2011; 진미정·성미애 2021; 진미정·정혜은 2010; 황인자 2020). 경제적 자원 혹은 인적자본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과 취업(오지혜·임정재 2016; Kim 2017; Yoon, Lim, & Kim 2022)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혼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은 결혼의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미혼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은 낮거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 2006; 김혜영·선보영 2011; 황인자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 및 성역할 가치관 등 관련 요인들과 결혼의향 연관성에 주목함으로써 결혼의향과 결혼행동을 유사한 과정으로 논의한다. 물론 결혼에 긍정적 및 부정적 태도가 결혼이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있지만, 앞서 논의한 태도와 행동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논의했듯이 결혼의향과 결혼행동은 다른 측면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 중의 하나가 취업 관련 요인이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가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임금 등 직업적 요인들과 결혼이행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다(Matsuda et al. 2024; Oppenheimer 1997; Piotrowski, Kalleberg, & Rindfuss 2015; Schneider 2011; Sweeney 2002).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에게 취업 요인은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지만 여성에게 취업 여부는 결혼이행 해저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계봉오·고원태·김영미 2021; 최필선·민인식 2015; Matsuda et al. 2023; Yoon, Lim, & Kim 2022). 뿐만 아니라 직업 형태를 보면 정규직 여부와 임금은 여성의 결혼이행을 낮추고 있다(오지혜·임정재 2016; 윤자영 2012; 이상립 2013; 탁우현 2020). 그러나 취업 여부가 여성의 결혼이행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결과도 있다(이수진·김주현 2022).

이처럼 취업이 여성의 결혼이행에 미치는 효과는 다양하다. 여성이 결혼보다 자신의 직업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에 대한 성취감을 높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안 할 가능성이 높다(윤자영 2012).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 여성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20~30대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취를 더 중요시 하고 있다. 이는 취

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결혼을 하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이 20대 47.5%, 30대 50.4%(시사IN 2023)이다. 그러나 전문직 여성들의 결혼의향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최근 들어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에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변하고 있다(계봉오·황인찬 2023).

이러한 결과 미혼 여성에게 취업은 결혼이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결혼의향이 없는 집단에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의향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효과가 미혼 여성의 취업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 관계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취업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반복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를 통해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분석한 연구와 달리 패널자료로 개인의 결혼의향이라는 태도와 결혼이행이라는 행동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이다. KLoWF는 여성의 일, 가족, 출산, 결혼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여 여성 및 가족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LoWF는 2007년도에 전국 9,068가구 내 만 19세부터 64세 여성 9,997명을 원표본으로 시작하여 2007년 1차 조사, 2008년 2차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조사 간격이 2년으로 변경되면서 3차(2010년), 4차(2012년), 5차(2014년), 6차(2016년), 7차(2018년), 8차(2020년), 그리고 2022년 9차 조사까지 완료했다. KLoWF의 1차 연도(2007년) 원표본 가구(9,068가구) 유지율은 9차 연도(2022년) 현재 61.3%이다(조선미 외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초혼 이행이라는 사건은 종단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KLoWF는 여성의 혼인 상태 변동 및 유무를 분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패널조사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다수 결혼 관련 연구들은 결혼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있어(오지혜 2020; 오지혜·임정재 2016; 우해봉 2009; 윤자영, 2012; 정희경·신형진 2020; 최필선·민인식 2015)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이 실제 결혼이행으로 이어지는지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을 조사한 국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¹⁾이다. 이 조사는 미혼 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2015년과 2018년 조사에서 결혼의향(‘결혼할 생각이 있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을 조사했다(이소영 외 2018). 그러나 이러한 횡단면 조사의 경우 결혼의향이 실제 결혼이행으로 이어지는가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중요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비해 KLoWF는 결혼의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결혼행위 간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패널조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KLoWF는 미혼 여성들의 결혼의향과 실제 결혼이행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 가장 유용한 자료이다.

이 연구는 KLoWF의 2차(2008년)부터 9차(2022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여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는 t 시점의 혼인 상태, 그리고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는 전 차수의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기준선은 KLoWF의 2차 조사(2008년)에서 수집한다. 2차 조사를 기준선 정보로 사용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KLoWF의 조사 주기 때문이다. KLoWF는 1차 조사(2007년)와 2차 조사(2008년)의 조사 간격이 1년이고 그 후로는 2년을 주기로 조사된다. 이러한 조사 시점의 차이로 이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2차 조사(2008년)를 기준선(baseline)으로 설정하고 2차 조사에서 미혼이라고 응답하고 3차 조사(2010년)에서 혼인 상태에 응답한 여성만을 표본으로 선택하고, 이들을 9차 조사(2022년)까지 혼인 상태를 추적한다.

2. 변수의 측정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초혼 이행이다. 이는 전 차수의 혼인 상태를 비교해 혼인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됨(박종서 외 2021).

상태에 변화가 없었다면 미혼, 미혼에서 기혼으로 변화하였다면 기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초혼=1, 미혼=0).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는 결혼의향이다. 결혼의향은 ‘_____님은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1) 있다, 2) 없다, 3) 생각해 본 적이 없다’의 3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1)’,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0)’의 2가지의 더미변수로 구분하였고(이수진·김주현 2022; 정희경·신형진 2020), 이는 시변 변수(time-varying)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통제변수로 연령, 최종학력, 재학 상태, 직업, 총 가구소득이 포함되었다(권오재 2017; 오지혜 2016; 우해봉 2019, 윤자영 2016; Kim 2017; Piotrowski, Kalleberg, & Rindfuss 2015; Yoon, Lim, & Kim 2022). 연령은 연속변수이며, 재학 상태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일 때 1, 재학 중이 아닌 경우 0의 더미변수다. 직업은 미취업을 준거집단으로, 관리직 및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기능직 및 노무직으로 구분하였다. 총 가구소득²⁾은 응답자 가구의 1년간 총 소득으로 만원 단위의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변수는 모두 시변 변수(time-varying)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학력은 응답자의 최종학력³⁾으로 고등학교를 준거집단으로 2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된 시불변 변수(time-invariant)이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결혼의향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discrete-time event history analysis)을 사용한다. 사건사 분석은 사건(event)이 발생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time to event)을 함께 고려한다(최필선 2023). 또한,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과

2) 가구의 총소득은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등 항목별 가구의 모든 형태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여성가족패널에서 가구소득은 여성의 일과 가족관계 형성에 주요한 변수로 활용된다. 또한 최근의 청년실업률 및 부모와의 동거 비율 증가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다면 개인소득과 달리 가구소득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수 점을 고려하여 결혼이행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남재량 외 2007; 정세정 외 2022; 조선미 외 2023; 계봉오·황인찬 2023). 이러한 이전 연구를 따라 가구 총소득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3) 사건사 분석 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교육수준과 결혼 관련 연관성 분석을 위해 교육수준을 최종학력으로 시불변 변수(time-invariant)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권오재 2017; 우해봉 2009; 오지혜·임정재 2016).

달리 관측 기간 동안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우측절단(right-censoring) 사례도 분석에 포함하여 추정치를 산출하거나 개인-기간(person-period) 형태로 자료를 구축하여 시변 변수(time-varying)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Allison 1984; Singer & Willett 2003).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KLoWF 자료는 연 단위로 구축된 자료이며, 각 조사 시점마다 혼인 상태를 묻는 문항을 측정하였다. 즉, t 시점에서 미혼인 응답자가 $t+2$ 시점에서 초혼으로 이행하는 정도를 이산형 시간(discrete-time)으로 측정하였다. 초혼이행을 분석한 많은 연구가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모형을 사용했다(우해봉 2019; 오지혜 2020; 최필선·민인식 2015; Kim 2017; Matsuda et al. 2023; Piotrowski, Kalleberg, & Rindfuss 2015; Schneider 2011; Yoon, Lim, & Kim 2022). 따라서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은 미혼에서 초혼으로의 혼인 상태 변화뿐만 아니라 초혼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모형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연구는 개인-기간(person-period) 형태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미혼인 응답자가 초혼인 사건에 노출된 위험(risk set)은 19세로 설정하였다. 한국에서 부모의 동의하에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이지만, KLoWF의 조사 표본에서 만 19세부터 조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KLoWF 2차(2008) 연도 조사 당시 19세인 미혼인 응답자가 해당한다.

사건사 분석에서는 개인-기간 형태로 구축한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조사에 참여하는 기간이 다르다. 따라서 이 경우 중도절단(censoring) 및 절단(truncation) 문제가 발생한다(Singer & Willett 2003). 먼저 이 연구에서는 KLoWF 2차 연도(2008년) 표본 중 이미 초혼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좌측절단(left-censoring)으로 분석에서 제외한다.⁴⁾ 그 후 혼인 상태에 대해 ‘미혼’이라고 응답하고, 3차 연도(2010년) 혼인 상태에 응답한 경우만 선택한다. 이 중 807명이 여기에 속하며 9차 조사(2022년)까지 혼인 상태를 추적한다. 그러나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에서 이탈(drop-out)하거나 다시 진입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초혼을 경험한 경우와 여전히 미혼인 상태로 남아 있는 구간중도절단(interval-censoring) 및 구간절단(interver-truncation) 경우도 발생한다(권오재 2007).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4) KLoWF 2차 연도(2008년) 조사 표본(전체: 8,666명) 중 혼인 상태에 대해 ‘기혼(별거, 이혼, 사별 포함)’이라고 응답한 7,58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대상자들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탈 기간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총 807명이며, 이를 개인-기간 형태로 구축한 총 2,519명이다.

이러한 변수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둘째, 연도별 혼인 상태 및 결혼의향 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생존함수를 통해 연령에 따라 결혼이행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결혼의향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logistic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해 결혼의향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경우 logistic regression에서 계수(coefficients) 값을 통해 초혼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Average Marginal Effects(AME) 추정치를 제시했다(Mood 2010; Schneider 2011).

IV. 분석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표 1>은 최종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이다. 먼저, 전체 조사 기간 동안 미혼에서 초혼을 경험한 여성은 8.0%이며, 미혼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92.0%이다.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통해 분석 기간 동안 미혼으로 남아 있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의향은 67.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2.4%는 결혼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1.6세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30.6%, 전문대학교 졸업 16.1% 순이다. 대부분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상태이며(76.5%), 23.5%가 정규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다. 직업은 49.0%가 미취업이고, 관리직 및 전문직 22.2%, 사무직 16.3%, 서비스 및 판매직 9.6%, 단순노무직 2.9%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총 가구소득은 3,559.6만 원이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N(명)	%
혼인 상태	미혼	2,317	92.0
	초혼	202	8.0
결혼의향	없음	815	32.4
	있음	1,704	67.6
연령(세)		31.6(평균)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43	53.3
	전문대 졸업	405	16.1
	4년제 대졸 이상	771	30.6
재학 상태	재학 중이지 않음	1,928	76.5
	재학 중	591	23.5
직업	미취업	1,233	49.0
	전문직·관리직	560	22.2
	사무직	411	16.3
	서비스 및 판매직	241	9.6
	단순노무직	74	2.9
총 가구소득(만 원)		3,559.6(평균)	
사례 수		2,5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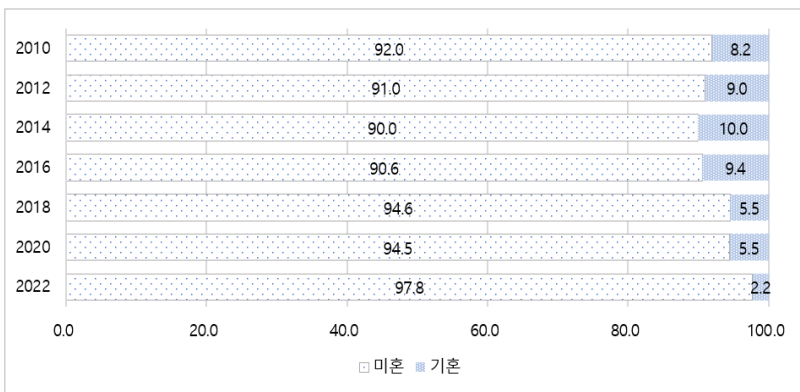
2. 미혼 여성의 혼인 상태 및 결혼의향 변화

앞서 <표 1>에서 미혼 여성의 혼인 상태는 92.0%가 미혼이고 8.0%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혼인 상태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지난 10년간 혼인 상태 변화는 전체적으로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 비율이 높다. 미혼 비율은 2010년 92.0%에서 2020년 94.5%까지 증가했고 2022년 기준 97.8%였다. 같은 기간 동안 결혼을 경험한 비율 또한 2010년 8.2%에서 2020년 5.5%까지 감소했고 2022년 2.2%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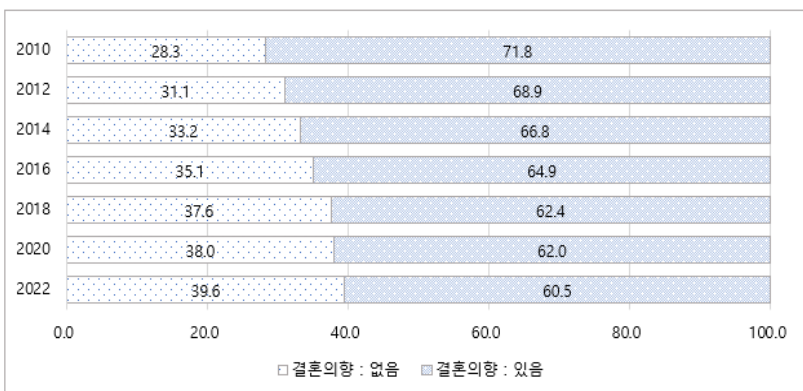
이러한 혼인 상태 변화는 최근 미혼 여성의 혼인 건수 감소로 인한 미혼율 증가와 관련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혼인 건수는 2010년 326,104건에서 2022년 191,690

건까지 감소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초혼의 경우 2010년 272,912건에서 2022년 160,089건, 같은 기간 여성 초혼은 268,541건에서 155,966건으로 감소했다(통계청 2024).

<그림 2>는 미혼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연도별 결혼의향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앞서 <그림 1>에서 살펴본 혼인 상태와 유사하게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 변화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즉, ‘결혼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10년 71.8%에서 2022년 60.5%로 감소했고, ‘결혼의향이 없다’라는 응답은 28.3%에서 39.6%로 증가했다.



<그림 1> 연도별 혼인 상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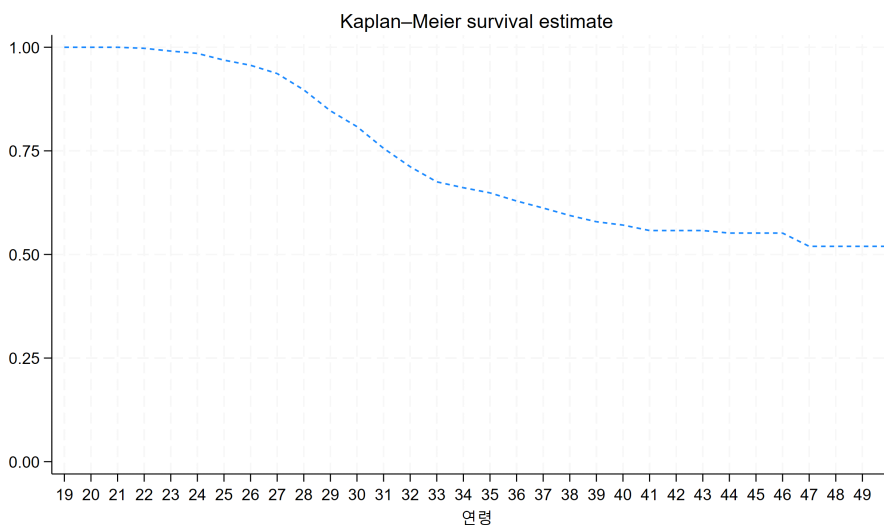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결혼의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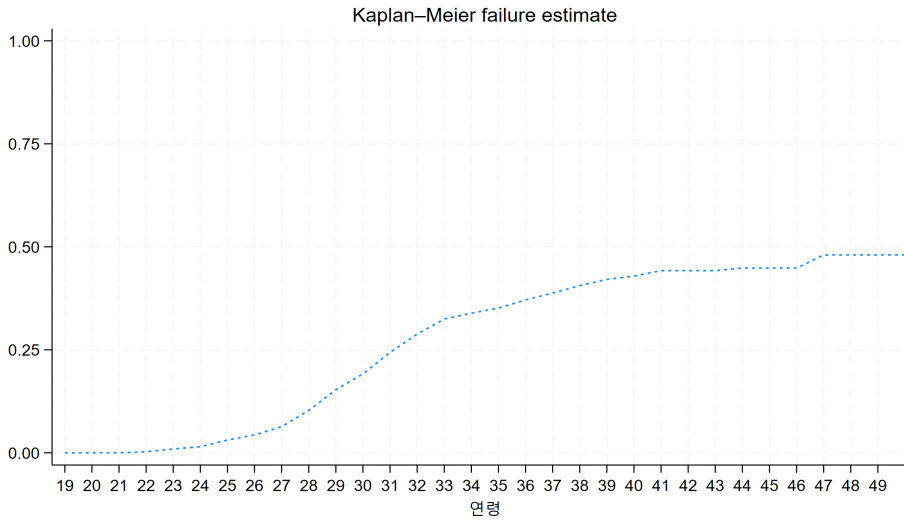
3.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생존분석

결혼이행에 대한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discrete-time event history analysis)에 앞서 미혼 여성의 연령에 따라 결혼의향과 결혼이행에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생존함수를 분석하였다.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생존함수 추정은 범주형 설명변수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결혼의향 두 집단에 따라 생존함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log-rank test를 실시하였다(민인식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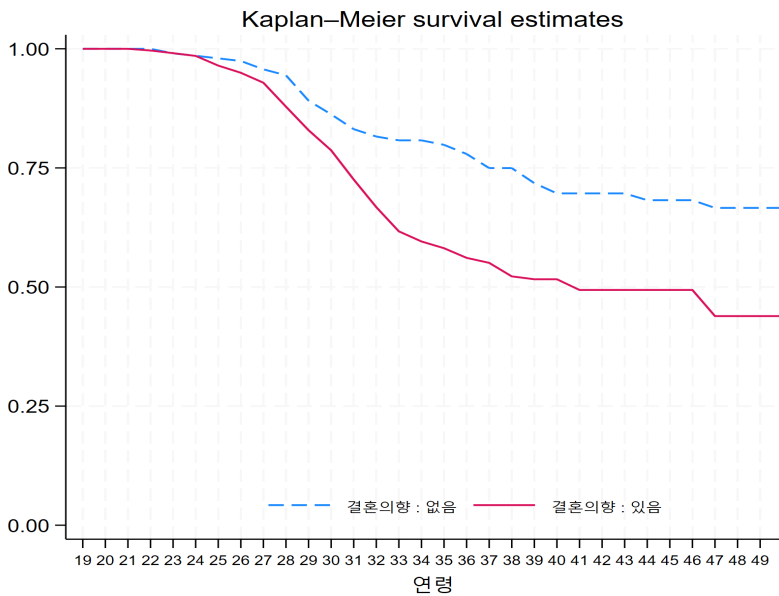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3>와 <그림 4>에 제시했다. 먼저, <그림 3>은 연령별 결혼 생존자 함수를 나타낸다. 그 결과 미혼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존확률 즉, 미혼 유지 확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즉, 27세 미혼 유지 확률은 89.7%, 30세 75.6%, 그리고 39세 57.1%로 30대 후반부터 그 기울기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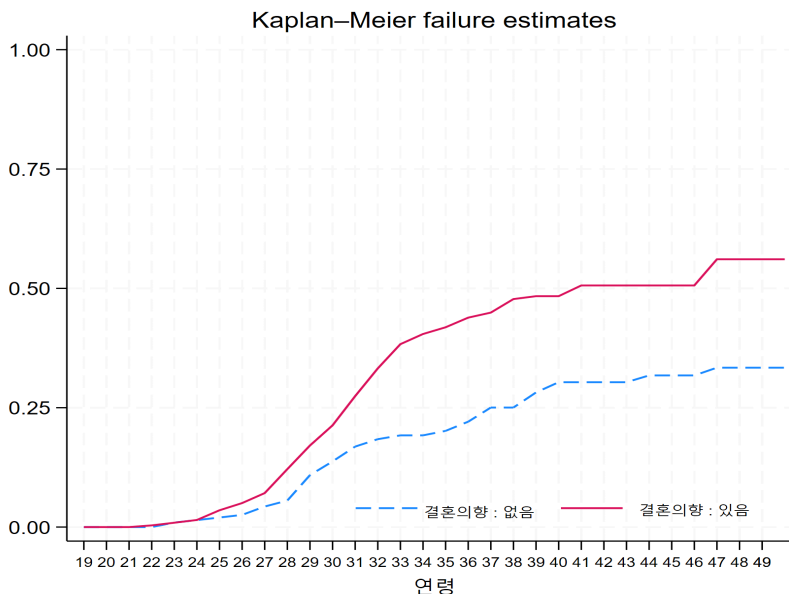
<그림 3>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그림 4> Kaplan-Meier failure estimate



<그림 5>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그림 6> Kaplan-Meier failure estimates

Note: * Log-rank test for equality of survivor functions ($\chi^2=15.89$, $\Pr>\chi^2 = 0.000$).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다음으로 <그림 5>와 <그림 6>에서 결혼의향에 따른 결혼이행을 살펴보고, 두 집단의 통계적 차이를 위해 log-rank 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5.89$ $\Pr>\chi^2=0.000$).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20대 초반까지 큰 차이는 없으나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결혼의향이 있는 집단과 결혼의향이 없는 집단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결혼의향이 없는 집단보다 결혼의향이 있는 집단의 생존자 함수가 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기울기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30대 초반부터는 완만해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결혼이행 생존함수를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패턴으로 여성에게 결혼이행에 있어 연령규모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오지혜·임정재 2016; 우해봉 2019; 은기수 1995; Piotrowski, Kalleberg, & Rindfuss 2015).

4.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에 관한 사건사 분석결과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했다. 모형 1은 결혼의향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분석한 것이고, 모형 2와 모형 3은 이러한 효과가 취업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와 미취업자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 1의 결과 결혼의향은 미혼 여성의 결혼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결혼의향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이행이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이행은 감소한다. 학력의 경우 준거집단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전문대 졸업과 4년제 대졸 이상 모두 결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 졸업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결혼할 가능성이 6.0% 높고, 4년제 대졸 이상 집단의 경우 4.2%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을 살펴보면 취업 여성은 미취업보다 각 직업 집단 모두에서 결혼이행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직 및 관리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형 2는 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앞선 모형 1과 달리 결혼의향이 결혼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학력은 모형 1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즉, 취업 여성들에게 연령은 결혼이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전문대 졸업인 경우가 결혼이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일 경우 결혼이행 확률이 6.3% 높다. 마지막으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 3을 보면 취업자와 달리 결혼의향이 결혼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긍정적 결혼의향은 미취업 여성의 결혼이행을 3.2% 증가시킨다. 학력은 앞선 모형과 마찬가지로 결혼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문대 졸업은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5.7%, 4년제 대졸 이상은 6.7%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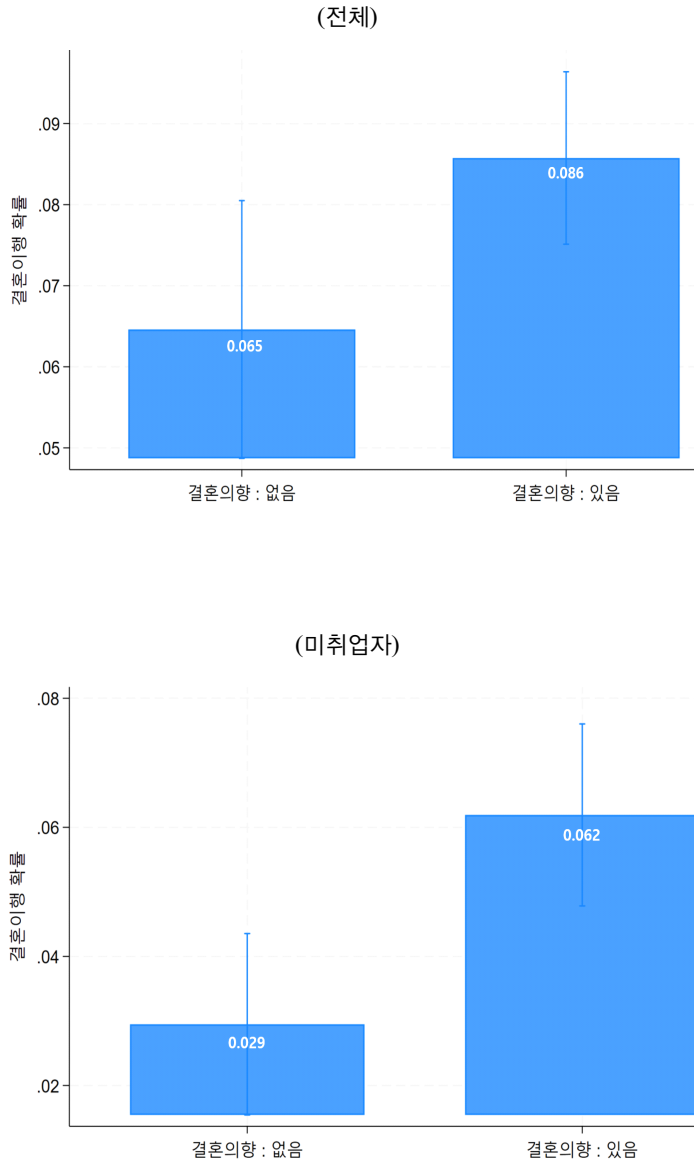
<표 2>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에 관한 사건사 분석결과

	전체 (모형 1)		취업자 (모형 2)		미취업자 (모형 3)	
	AME	S.E	AME	S.E	AME	S.E
결혼의향	0.021 ⁺	0.012	0.003	0.021	0.032 ^{**}	0.012
연령	-0.003 ^{***}	0.001	-0.006 ^{***}	0.001	-0.001	0.001
최종학력(ref: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0.060 ^{***}	0.018	0.051 [*]	0.024	0.057 ⁺	0.033
4년제 대졸 이상	0.042 ^{**}	0.015	0.027	0.022	0.067 [*]	0.027
재학 상태	-0.023	0.018			0.007	0.018
직업(ref: 미취업)						
전문직·관리직	0.039 [*]	0.017	0.063 [*]	0.035		
사무직	0.029 [*]	0.017	0.044	0.035		
서비스 및 판매직	0.045 ⁺	0.023	0.054	0.037		
단순노무직	-0.003	0.033				
총 가구소득(로그)	-0.006	0.004	-0.007		-0.002	0.004
<i>N</i>	2,519		1,286		1,233	
Log Likelihood(LL)	-661.980		-419.532		-236.153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지금까지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 사건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긍정적 결혼의향은 미혼 여성의 초혼 이행 가능성을 높인다(계봉오·황인찬 2023; 이수진·김주현 2022; 정희경·신형진 2020; Guzzo 2009; Raymo, Uchikoshi, & Yoda 2021).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취업 여성보다 미취업 여성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근거해서 결혼의향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확률 효과를 추정한 결과 먼저 전체 미혼여성 표본을 이용한 모형에서 긍정적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 결혼가능성이 8.6%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6.5%에 불과하다. 그러나 취업 여성에게 결혼의향과 결혼이행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반면, 미취업 여성의 결혼이행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미취업 상태에 있는 미

혼 여성은 취업 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높을수록 결혼할 확률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결혼의향에 따른 결혼이행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지금까지 결혼 관련 선행연구의 제한성에 주목하여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결혼에 대한 논의는 Becker(1973; 1974)와 Oppenheimer(1988)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적자본 혹은 경제적 자원과 결혼 가능성에 집중해 왔다(오지혜·임정재 2016; 최필선·민인식 2015; Kim 2017; Sweeney 2002; Xie et al. 2003). 또한 결혼과 관련한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가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결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에 대한 태도와 행동 간의 이행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반복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를 통해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반적인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불과하며(이상림 2018; 진미정·정혜은 2010; 호정화 2014; Lee 2019), 개인의 태도가 결혼이행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초혼이행이라는 사건은 종단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는 여성의 혼인 상태 변동 및 유무를 분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패널조사로 미혼 여성들의 결혼의향과 실제 결혼이행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 가장 유용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2차 연도(2008년)부터 9차 연도(2022)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취업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패널조사 2차 연도(2008년)부터 9차 연도(2022)까지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초혼이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혼의향과 초혼이행 감소가 미혼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 10년간 혼인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322.8천 건에서 2023년 19만 4천 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29.6세에서 31.5세까지 증가했다(통계청 2024). 이에 따라 생애미혼율 또한 2013년 5%에서 2023년 14%까지 높아졌다(정선영·한지우 2024).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

혼 여성의 미혼 지속기간은 점차 늘어나고 미혼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혼 여성의 생존자 함수 즉, 미혼 유지확률은 점차 감소한다. 결혼의향 집단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결혼의향이 있는 집단과 결혼의향이 없는 집단 모두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때 결혼의향이 없는 집단보다 결혼의향이 있는 집단의 생존자 함수가 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기울기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30대 초반부터는 완만해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셋째, 긍정적 결혼의향은 미혼여성의 초혼이행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결혼의향이 있는 여성은 결혼의향이 없는 여성에 비해 결혼이행 가능성이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취업 여성보다 미취업 여성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업 상태에 있는 미혼 여성은 취업 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높을수록 결혼할 확률이 3.2% 높게 나타났다.

취업과 결혼 관계를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자본과 결혼시기에 초점을 두고 취업에 따라 여성의 결혼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취업이 여성의 결혼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효과가 남성보다 낮거나 오히려 결혼이행 가능성을 낮추기도 한다(김수진·김주현 2022; 오지혜·임정재 2016; 윤자영 2012; 이상림 2013; 최필선·민인식 2015). 이처럼 취업이 여성의 결혼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취업과 여성의 노동시장 관계를 고려한다면 취업한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안정성보다는 직업에 대한 열망과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을 추구함에 따라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결혼시장 이론(marriage market theory)’에 따르면 경제적 자본이 많은 여성일수록 배우자 선택 등 결혼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해 결혼 시기가 늦어지지만 미취업 등 경제적 자본이 낮을수록 결혼을 통한 정서적 및 경제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결혼을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 취업 여성은 자신의 인적자본 향상으로 배우자 선택에 있어 경제적 잠재력 등 조건에 적합한 배우자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배우자 선택 조건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해 결혼 탐색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오지혜·임정재 2016; Kim, Lee, & Park 2016; Kondo 2012). 그렇다면 취업자의 경우 미취업자에 비해 결혼의향이 높다 할지라도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결혼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지도 모른다. 미혼 여성에게 결혼은 이제 더 이상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다. 연애가 결혼으로 이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은 ‘선택/비선택/이행/지연’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성수진 2024). 이로 인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약화되

고 결혼 시기는 더욱 늦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이 연구는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로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혼인을 감소는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 남성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 10년간 미혼 남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의 경우 2010년 60.4%에서 2022년 36.9%로 감소했다(통계청 2012; 2022).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에서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아·곽은혜·김근태 2022; 김정석 2006; 조성호·변수정 2020). 그러나 실제 초혼이행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계봉오·고원태·김영미 2021). 또한 취업 여부가 남성의 결혼이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의향과 초혼이행에 직업이 미치는 영향에 성별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종단적 자료 분석을 통해 미혼 남녀 각각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 관계에 초점을 두어 결혼의향이 결혼이행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했다. 그러나 태도와 행동 관계에 초점을 둔 많은 선행연구는 Azen의 Theory of Planned Behaviors(TPB)를 적용하여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인식된 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 등 다양한 변인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산에 대한 의향이 출산행동으로 실현되는 구체적 과정을 분석한다(Ajzen 1991; Ajzen & Klobas 2013; Morgan & Rackin 2010).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태도와 관련하여 결혼의향이라는 변인만 분석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결혼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경제적 자본과 함께 출산, 자녀양육, 돌봄 등에 대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계봉오·고원태·김영미 2021; 오지혜·임정재 2016). 특히 20-30대 미혼 여성들의 결혼 결정에 출산, 가사일에 대한 전담, 시댁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 성별 분업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영향을 줄 수 있다(김은지·김효정 2023; 이재경·김보화 2015; 한혜림·이지민 2020).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을 분석하여 결혼태도와 결혼행동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횡단면 자료 분석에 대한 한계점을 논의하고 결혼의향과 결혼이행 관계를 분석하는 데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했다. 패널자료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궤적(trajecory)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패널 이탈(attrition)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김근태 2023; Singer & Willett 2003). 특히 계봉오·황인찬(2023) 연구에 따르면 여성가족패널은 초혼이행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표본이탈 문제로 인해 초혼이행률이 과소추정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실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분석에서 추정된 초혼이행률보다 여성가족패널의 초혼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으로 인한 표본이탈이 심한 본 패널 자료는 혼인이행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적절한 자료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혼인에 대한 태도 문항이 있는 패널자료는 여성가족패널이 유일하기 때문에 본 자료를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패널조사의 표본이탈을 최소화한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한국 사회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인구감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혼인 건수 감소이다. 이러한 인구변동을 이끄는 주요한 원인이 개인의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이다(이병호 2020).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둔 이 연구는 미혼 여성의 결혼 및 미혼율 변화를 통해 미혼 인구의 전반적 특성과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인구학적 측면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KGSS. 2016.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설문지 A형.”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 계봉오·고원태·김영미. 2021. “여성의 고학력화와 결혼시장 미스매치 가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90-2015.” 《조사연구》 22(1): 61-89.
- 계봉오·황인찬. 2023. “결혼의향 변화에 대한 다상태 생명표 분석.” 《조사연구》 24(1): 81-111.
- 권오재. 2017. “결혼의 계층화와 전통적 성 정체성의 고착: 부모 자산이 성인 자녀의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근태. 2023. “패널 대표성 및 표본이탈 분석.”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59-279

- 김영아·곽은혜·김근태. 2022.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보고서 2022-10.
- 김은지·김효정. 2023. “한국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혼재 속 청년세대의 제도적 결혼 가치.” 《사회과학연구》 35(2): 105-140.
- 김은정. 2018. “미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9(4): 1291-1306.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중백. 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67-189.
- 김혜영·선보영. 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남재량·이상호·최효미·신선옥·배기준. 2007. “제10차(2007)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민인식. 2023. 《STATA 생존분석 1판》. (주)지필미디어.
-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박선영·이재림. 2022. “한국 청년의 결혼의향 영향요인 메타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2): 107-137.
-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수진. 2024. “30대 취업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연애와 결혼의 의미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40(1): 67-103.
- 송다영. 2023. “여성의 일가족양립 현실과 정책과제.” 《젠더리뷰, 이슈리뷰2》 48-56.
- 시사인. 2023.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델을 거부하는 사람들[2023 연애·결혼 리포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41>.
- 신윤정·이명진·전광희·문승현. 2020.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을 예측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은영·추주희. 2020.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21》 11(1): 1217-1231.
- 오지혜. 202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패널 1998~2016년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4): 50-81.
- 오지혜·임정재. 2016. “한국 미혼 남녀의 결혼 시기와 결혼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0(5): 203-245.
- 이재경·김보화. 2015. “20-30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

- 심으로: 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4): 41-85.
- 우해봉. 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25-50.
- 우해봉·이지혜. 2019. “출산 의도를 반영한 출산 패턴과 영향 요인 분석.” 《통계연구》 24(4): 1-27.
- 우해봉·장인수. 2019.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 간 연관성 분석과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46(2): 85-115.
- 윤자영. 2012. “노동시장 통합과 결혼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이병호. 2020. “제2차 인구변천 이론, 1986-2020: 특징, 논쟁, 함의.” 《한국인구학》 43(4): 37-68.
- 이상림. 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39-71.
- 이상림. 2018. “미혼인구의 결혼 관련 태도.” 《보건복지포럼》 258호: 6-18.
- 이소영·김은정·박종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진·김주현. 2022. “한국과 일본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과 결혼이행과의 관계.” 《여성연구》 114(3): 55-88.
- 이인정. 2005.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관한 이론의 사회복지실천 적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28: 105-131.
- 이지나·황명진. 2019.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출산의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71: 117-151.
- 정병삼. 2021. “한국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차이 분석.” 《여성연구》 108(1): 193-223.
- 정선영·한지우. “2024.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BOK 이슈노트: 2024-1, 1-17.
- 정세정·류진아·강예은·김성아·함선유·김동진·임덕영·신영규·김문길·이혜정·김기태·김태완·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희경·신형진. 2020. “결혼가치관의 변화가 초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32(1): 132-155.
- 조선미·김은정·김동선·한진영·이진숙·임연규·손창균·김근태·계봉오. 2023.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성호·변수정. 2020.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40(4): 82-114.
- 진미정·성미애. 2021. “청년층의 동거 경험 및 동거 수용성과 결혼 의향의 관련성.”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1-14.
- 진미정·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진미정·한준·노신애. 2019. “20-30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가치관의 잠재유형과 한국 사회 인식 및 개인적 미래 전망의 관련성.” 《가족과 문화》 31(1): 166-188.
- 최필선·민인식. 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제도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57-83.
- 탁우현. 2020.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2): 223-244.
- 통계청. 2010. “201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보도자료, 2010.1027.
- 통계청. 2012. “2012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12.20.
- 통계청. 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보도자료, 2020.11.18.
- 통계청. 2020.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도자료, 2020.11.24.
- 통계청. 20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보도자료, 2021.9.27.
- 통계청. 2022. “2022년 사회조사결과(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보도자료, 2022.11.16.
- 통계청. 2022. “2022년 사회조사표(가구원).” 건강·교육과 훈련·범죄와 안전·가족·생활환경.
- 통계청. 2023. “2022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2023.3.16.
- 통계청. 2024. “2023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2024.3.19.
- 한혜림·이지민. 2020. “30-40대 자발적 비혼 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2): 201-214.
- 행정안전부. “2021. 보도자료” 2021.01.04.
- 호정화. 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25-59.
- 황인자. 2020. “미혼여성의 일 만족도와 가족가치관, 건강과 여가생활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17(2): 76-100.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and J. Klobas.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 203-232.

- Allison, P.D. 1984. "Event History Analysis: Regression for Longitudinal Event Data (No. 46)." Sage.
- Becker, G.S.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4): 813-846.
- Becker, G.S. 1974. "A Theory of Marriage: Part I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2): Part 2, S11-S26.
- Cheng, Y.H.A. and C.L.W. Yang. 2021. "Continuity and Changes in Attitudes toward Marriage in Contemporary Taiwan."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38(2): 139-167.
- Kim, B.H., J.K. Lee, and H. Park. 2016. "Marriage, Independence and Adulthood among Unmarried Women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44(3): 338-362.
- Kim, K. 2017. "The Changing Role of Employment Status in Marriage Formation among Young Korean Adults." *Demographic Research* 36: 145-172.
- Kondo, A. 2012. "Gender-specific Labor Market Conditions and Family Forma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5: 151-174.
- Lee, Y. 2019. "Cohort Differences in Changing Attitudes toward Marriage in South Korea, 1998-2014: An Age-period-cohort-detrended Model." *Asian Population Studies* 15(3): 266-281.
- Lei, L. and Q.D. Mai. 2024. "Precarious Transitions: How Precarious Employment Shapes Parental Coresidence among Young Adults." *Social Forces* soae050: 1-27.
- Matsuda, S., T. Sasaki, J. Shin, and J. Bae. 2024. "Deterioration in Youth Employment, Social Contexts, and Marriage Decline in Japan and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20(2): 203-221.
- Miller, W.B. 2011. "Differences between Fertility Desires and Intentions: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olicy."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75-98.
- Mood, C. 2010. "Logistic Regression: Why We Cannot Do What We Think We Can Do, and What We Can Do about I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 67-82.
- Morgan, S.P. and H. Rackin. 2010. "The Correspondence between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1): 91-118.
- Guzzo, K.B. 2009. "Marital Intentions and the Stability of First Cohabit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30(2): 179-205.

- Oppenheimer, V.K.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3): 563-591.
- Oppenheimer, V.K. 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1): 431-453.
- Park, S.S. and L.A. Rosén. 2013. "The Marital Scales: Measurement of Intent, Attitudes, and Aspects Regarding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4(4): 295-312.
- Piotrowski, M., A. Kalleberg, and R.R. Rindfuss. 2015. "Contingent Work Rising: Implications for the Timing of Marriage in Jap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5): 1039-1056.
- Raymo, J.M., F. Uchikoshi, and S. Yoda. 2021. "Marriage Intentions, Desires, and Pathways to Later and Less Marriage in Japan." *Demographic Research* 44: 67-98.
- Schneider, D. 2011. "Wealth and the Marital Divid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2): 627-667.
- Schoen, R., N.M. Astone, Y.J. Kim, C.A. Nathanson, and J.M. Fields.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90-799.
- Singer, J.D. and J.B. Willett. 2003.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Modeling Change and Event Occurr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Sweeney, M.M. 2002. "Two Decades of Family Change: The Shifting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1): 132-147.
- Willoughby, B.J. 2014. "Using Marital Attitudes in Late Adolescence to Predict Later Union Transitions." *Youth & Society* 46(3): 425-440.
- Willoughby, B.J., S.S. Hall and H.P. Luczak. 2015. "Marital Paradigms: A Conceptual Framework for Marital Attitudes, Values, and Beliefs." *Journal of Family Issues* 36(2): 188-211.
- Xie, J. and X. Hong. 2022.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Chinese College Students' Marriage Intention: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Frontiers in Psychology* 13: 868275.
- Xie, Y., J.M. Raymo, K. Goyette, and A. Thornton. 2003. Economic Potential and Entry into Marriage and Cohabitation. *Demography* 40: 351-367.
- Yoon, S.Y., Lim, S., and Kim, L. 2022. "Labour Market Uncertainty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18(1): 6-23.

Marital Intentions and Transition to First Marriage for Young Adult Women

Phil-Suk Kim
(University of Seoul)
Yun-Suk Lee
(University of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unmarried women's marriage intentions on the transition to marriage. To this en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second-wave (2008) to the ninth-wave (2022) survey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by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high proportion of unmarried participants had remained unmarried throughout the period of analysis, and negative marriage intentions tended to increase. Second, women with marriage intentions had a higher probability of transition to marriage than women without marriage intentions. This effect varied greatly depending on the employment status of unmarried women. Among unemployed women, those with higher positive marriage intentions had a higher probability of transition to marriage than employed women. These results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regarding recent changes in the marriage rates among unmarried women.

Key words: marital intentions, transition to first marriage, KLoWF, discrete-time event history analysis